

韓 제약사, 뇌기능 개선제 ‘니세르골린’ 주도권 경쟁 치열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제로 주목
종근당, 넥스콜린정30mg 품목 허가
현대약품·보령 등 15곳 허가 획득

국내 뇌 기능 개선제 시장에서 니세르골린 제제 품목허가가 확대되고 있다. 제약 업계에서는 니세르골린 성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과 적응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체제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넥스콜린정30mg(성분명: 니세르골린)’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니세르골린은 용량은 5·10·30mg 등 3가지다. 니세르골린 제제 5mg과 10mg은 뇌 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 저하 개선, 노인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효과가 있다.



한미약품에서 출시한 니세르골린 제제의 뇌기능 개선제 ‘니세르골린’ 제품 모습. /한미약품

니세르골린 30mg은 일차성 퇴행성 혈관 치매 및 복합성 치매와 관련된 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 등의 일차적 치료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니세르골린정30mg(성분명: 니세르골린)’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최근까지 니세르골린 성분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 회사는 현대약품, 보

령 등 15곳에 이른다.

현재 뇌 기능 개선제와 관련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료제 시장에서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대웅바이오는 해당 시장 점유율을 24.8%, 종근당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 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사용된다.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 장애, 집중력 감소 등에 효능을 갖는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니세르골린 제제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유효성 논란 및 급여축소·삭제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일부 효능 미입증으로 인해 허가 사항 내 치료범위가 축소·변경됐고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비중을 줄이면서 현재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 업체들은 니세르골린의 시장성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니세르골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6.6% 성장해 오는 2029년 23억 5470만 달러(약 3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니세르골린 제제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의 의약품이다. 환인제약, 알보젠코리아, 하나제약 등은 오는 3월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바이오의약품협회 정기총회 제5대 이사장에 오상훈 선출

국내 대표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사진)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상무), 삼성화재해상보험 미국법인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재무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영 노하우를 축적했다. 지난 2016년 차헬스시스템스 USA의 대표이사를 맡아 미국내 차병원 의료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총괄했다. 2019년 차바이오텍 대표로 취임해 국내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제대혈 보관사업과 유전체 분석·진단 사업 등 사업부문의 글로벌 확장과 수익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립된 약사법 및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세경 기자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차세대 리더 협의회 ‘상상주니어보드 3기’ 구성원이 이날 진행된 해단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G

KT&G ‘상상주니어보드’ 조직문화 혁신 경영제언

KT&G의 차세대 리더 협의회 ‘상상주니어보드’가 경영진에게 직접 경영제언을 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미팅에서는 출산과 육아, 일과 삶의 균형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D&I)’ 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상상주니어보드 3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0개월간 상상주니어보드 3기는 ‘글로벌 톱 티어’ 미래 비전에 대한 내부 공감대 강화 활동을 비롯해 ‘CEO 타운홀 미팅’, ‘신규 입사자 온보딩 콘텐츠’, ‘분야별 우수 리더 선발’ 등 조직문화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다.

한편 KT&G는 지난 2021년 5월, 기존의 조직문화 개선 기구인 ‘상상실현위원회’를 개편하여 2030 구성원 중심의 ‘상상주니어보드’ 1기를 출범했다. ‘상상주니어보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경영진과 소통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KT&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워라벨 실천 우수기업’과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이후 계속해서 재인증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벤티지랩, LNP 제조장비 국내 첫 개발

자체개발 핸디진 쇼케이스 개최
연구소 등 20여개 기관 초청 진행

인벤티지랩이 국내 처음으로 지질 나노입자(LNP)를 생산할 수 있는 단일장비를 개발, LNP 유전자치료제 개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연구단계부터 비임상, 초기임상 시료 생산까지 가능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인벤티지랩은 오는 28일 판교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LNP 제조장비인 ‘핸디진(HANDYGENE)’의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핸디진 쇼케이스 2024’는 현재 인벤티지랩과 제휴관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사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의 대기업 및 연구소 등 약 20여개 기관을 초청해 진행한다. 핸디진 제조·품질관리기준(GMP)는 해당 라인업의 첫 번째 장비로 마이크로플루이드



인벤티지랩이 개발한 ‘HANDYGENE™’

기반의 플랫폼 기술인 ‘진플루이드(GeneFluidic)’를 적용한 LNP 제조 장비 시스템이다. LNP 후보제형 도출의 연구단계부터 비임상, 초기임상 시료 생산까지 가능해 바이오 생산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스케일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처럼 나노입자를 만드는 전공정과

그 나노입자를 안정화시키고 농축하는 후공정을 통합한 LNP 단일 장비는 핸디진 GMP가 업계 최첨단. 또한, 핸디진 GMP는 기존의 다른 연구개발 단계의 장비와 달리 제조 소모품 파트가 모두 GMP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전후공정 통합장비인 점도 특징점으로 꼽힌다.

인벤티지랩은 정교한 소량의 샘플 생산을 위해 실험실 스케일의 ‘핸디진랩’ 개발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양산이 가능한 ‘핸디진 커머셜’ 모델은 올해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LNP 제조의 연구·비임상·임상-GMP 양산에 이르는 전주기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국내외 CGT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형연구 및 시료 생산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 및 장비 구축 모델을 통한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한양행, 161명에 1년 등록금 43억 장학금 지원

유일한 박사 인재 육성 뜻 이어

유한양행이 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유한재단이 지난 23일 유한양행 4층 대강당에서 ‘2024년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권예린 등 161명으로 1년 등록금을 두 학기에 나눠 지급 받는다. 2024년 장학금 규모는 1, 2학기 합쳐 총 43억 원이다.

독립운동가, 혁신적 기업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그 삶을 살아온 고



지난 23일 유한양행은 ‘2024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재단은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유한재단은 지난 1970년부터 올해까

지 55년 동안 매년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다. 장학금 수혜자는 연인원 8000여 명에 이르고 지원금액은 총 260여 억 원에 이른다.

/이청하 기자

CNP 초저점도 무중력 선크림 애프터-레이 쿨링 선크림

LG생활건강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가 초저점도·초경량 자외선 차단제를 선보인다.

LG생활건강은 CNP에서 ‘애프터-레이 쿨링 선크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CNP 선제품 대비 평균 점도가 84% 낮은 액상 제형으로, 피부에 얇게 밀착된다. 끈적임이나 무거운 사용감을 개선했다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뭉침이나 백탁 현상이 없어 여러 번 덧발라 사용하기도 적합하다. SPF50+/PA++++ 등급의 자외선 차단력도 갖췄다.

뿐만 아니라 ‘애프터-레이 쿨링 선크림’은 약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리페어 펩타이드와 글루-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즉각적인 냉각 효과로 피부 온도를 낮춰 자극받은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조약돌 형상의 용기 디자인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2중 밀폐 구조는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고 동시에 원하는 만큼 사용량을 조절해 준다.

/이청하 기자